朝鮮日報
夕刊
十二日(日)
本紙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共通最大限과 海軍軍縮決裂

一

倫敦海軍軍縮本會議는 日本側主張의 共通最大限問題로 英米佛伊四國對 日本一國의 對立이 尖銳化하야 인제 破裂할수박게 업는 危境에 直面햇다。國際外交에는 에누리가 잇는 法이니까、最後의 一瞬間에 이르러 어떠한 雰圍氣의 變化가 생길는지 그것은 保證해 말할수 업스나 只今 이 瞬間까지의 空氣로는 거이 妥協點의 發見이 無望한 狀態에 잇다고 볼수박게 업다。이때에 際하야 우리는 日本이 共通最大限을 主張하는 理由와 밋、英米佛伊四國이 一致하야 日本의 이 主張에 反對하는 理由를 말하야 그것은 畢竟은 海軍本會議를 決裂에까지 誘導할수박게 업는 理由를 考察하고저한다。

二

海軍本會議에 對한 日本의 主張은 三項目인바 그中에서 가장 基礎가 되는者는 共通最大限問題다。『共通』은 『어느 나라나 꼭가티』라는 말이다。『最大限』은 各國이 保有할 最高噸數를 意味하는것이다。그러니까、『日英米佛伊의 五大海軍國은 各各、保有할 最高噸數를 定하되、누가 더 가지고、누가 덜 가지는 弊端이 업도록하기爲하야 一律로 꼭 가튼 最高噸數를 가지자。』고하는것이 日本의 主張이다。이것은 旣存兩條約에 잇서서의 差等比率主義의 撤廢를 意味하는것이며、日本年來의 主張인 軍備平等權의 要求다。그런데、英米兩國이 이에 對하야 反對하는것은 日本을 어디까지든지 劣勢海軍國으로 떠러트린대로 두자는 말이오、그裏面에는 兩國의 極東門戶開放主義를 擁護하는데는 兩國은 日本에 比하야 優勢海軍을 가질수박게 업다는 意圖가 潛在한것이다。그러나 이것은 極東몬로主義下에 極東의 安定勢力으로 自處하려는 日本의 容許할바가 못된다。이問題에 關해서만은 日本도 讓步할수 업고、또 英米도 讓步할수가 업는것이다。故로 結局은 英米는 日本과 對立할수밧게 업다。他方、이共通最大限問題에 對한 佛伊의 立場을 본다고하면 佛伊兩國은 그國情上으로보아 日英米와 同權의 共通最大限을 條約上으로 가저보앗다사 그만한 海軍軍備를 事實로 가지기가 不可能한狀態에 잇다。이런 意味로보아 佛伊兩國、亦是、日本의 共通最大限의 主張과는 步調를가치 할수가 업는것이다。이런事情에 依하야 日本은 四國과 對立할수밧게 업는것이다。

三

이러케 생각할때에 우리는 佛伊보다도 英米兩國과 日本과의 對立은 根本的對立이오、따라서 妥協點發見이 甚히 困難한 對立인것을 알수가 잇는 同時에 海軍軍縮에 잇서서의 이 根本的對立을 釀出하는 根本原因은 英米兩國의 國策과 日本의 國策과의 兩者間에 到底히 相容할수업는 對立關係가 잇다는 一點에 잇음을 알것이다。換言하면 海軍會議決裂의 根本原因은 英米의 極東門戶開放主義에 對한 日本의 極東몬로主義의 相互衝突에 잇슴을 알것이다。詳言하면 英米가 그國策에 잇서서 極東門戶開放主義를 抛棄치 아니하는以上、兩國은 日本에對한 優勢海軍主義를 버리지 못할것이오、또、此를 日本으로 보면 日本이 單獨으로 責任을 가지고 極東에對한 歐米諸國의 政治的 干涉을 防止하겟다는 主義를 버리지 안는以上、日本은 到底 英米에 對한 海軍軍備均等權 要求를 抛棄할수가 업는것이다。即、目下의 形勢로 보면 서로 讓步할수가 업스니까、妥協이 困難하고、困難하니까 結局은 會議가 決裂되는것인데、萬若、決裂된다면 全世界는 다시 一九二一年以前모양으로 無條約狀態로 도라가서 軍備擴張競爭에 忙殺할것으로 볼것이다。

十日未明、에國軍 遂마칼레奪還!

幽閉되엿던多數捕虜奪還코 銃彈藥等多量鹵獲

【아디스아베바十一日發同盟】 라스·세윰將軍麾下의 에디오피아北軍右翼은 十日未明에 마칼레로 向하야 全軍進擊을 開始하야 伊太利軍과 猛烈한 白兵戰을 展開하엿다 戰鬪는 終日繼續하야 雙方이 만흔死傷者를 내엇는데 夕刻에 至하야 에디오피아軍은 畢竟 마칼레奪取에 成功하엿다고 傳한다 에디오피아軍은 右戰鬪에서 마칼레市에 幽閉된 多數의 捕虜를 奪還하고 라이풀銃彈藥等 多數의 軍需品을 鹵獲하엿다고 한다 (寫眞은 에디오피아白帝)

弱點은 英米에? 決裂後軍備競爭

日本代表部側觀測

【倫敦十一日電通特派員發】 軍縮會議決裂後에 關하야 日本代表部의 專門家側은 如左한 見解를 가지고잇다

米國은 目下 條約量에 未滿한것을 補充하기爲하야 産業復興費에 依한 三年計畫十二萬一千噸、뷘손案에 依한 十五萬二千噸의 彪大한 建艦計畫을하야 그海軍費는 四億五千萬弗로 華府會議直前과 如한 膨脹을 招來하고 잇는데 이完成은 一九四一年의 豫定이오 이外에 一九三七年으로 부터 戰艦代艦建造를 하지안흐면 안되므로 多額의 海軍費를 要한다 그런데 一方經濟復興에도 돈이들므로 米國으로서도 建艦競爭에 相當히 苦痛을 感할 情勢다 또 英國도 一九四一年부터 一九四三年까지에 十五隻의 戰艦中 十二隻은 艦齡滿期에 達하야 代艦을 建造치안흐면 안되고 또가장 必要한 乙級巡洋艦이 잇달아서 代艦치안흐면 안될 時期가 되엇다 이外에 空軍大擴張도 必要에 切迫되고잇스므로 海軍競爭은 可及的回避할것을 希望하고잇다 此等事情을 考慮하면 決裂後에 반드시 建艦競爭이 잇스리라고는 생각되지안는다 그러나 現在의 如斯한 劣勢比率에 束縛되어잇서서 손발을 내어노흘수 업스나 그拘束으로 부터 脫却하면 國情에 應한 特徵잇는 軍備를 整備하야 他國이 彪大한 建艦計畫으로 壓迫하더라도 量으로써 對抗할 必要도업고 安心하고 國防의 安固를 期할수잇는 確乎한自信을 가지고잇다 英國新聞은 英米佛伊에獨蘇를 加하야 새로 六國會議를 開催한다는 說을 傳하고잇스나 獨蘇參加는 現在로는 좀 생각키어렵다 그러나 英佛米伊四國만으로 會議를 繼續할 可能性은 認定되되 無條約狀態가 두려운 나라는 明白히 잇다 例컨대 佛國等은 世界의 海軍이 無條約狀態에 陷하면 그때에 乘하야 獨逸이 어떤짓을 할지 念慮하고잇는터로 無理는 아니다 그리고 英米가모다 可及的어떠한協定을 成立시키려고 希望하고 잇슴으로 어느 程度의 것이될는지는 別問題로하고如何튼 四國會議를 繼續하게될는지도 모른다 四國會議가 道德的責任을 日本에 負케한다는것은 若干잇슬는지 모르나 日本은 參加치 안흘것이므로 그런念慮는 必要가업다

無條約狀態憂慮國은 日本이아니다!

暴風前의永野全權談

【倫敦十日電通特派員發】 暴風雨前의 靜寂。日本代表部에서는 十日夜 永野全權으로부터 記者團에 如左히 말하엿다

會議가 早晩 이에 到達하리라고 일직 覺悟한바이다 日本側의 共通最大限主張이 通過되지안는限 脫退할수밧게업다

『土地暴用』阻止 米大統領考慮中

農事調整法失敗對策

【華盛頓十日發電通】 루즈벨트大統領은 十日 記者團에게 對하야 如左히 『政府는 目下 違憲判決로 死滅한 AAA(農事調整法)의 代案으로 새로 土地暴用防止計畫을 樹立하야 이計畫下에 政府가 農民으로부터 借入하야 이것을 耕作에 使用치 안코 保存함으로써 農事調整을 行할것을 考慮中이다』라고 言明하엿다。 米國沃土를 無統制로 使用하야 그産物을 싸게 外國에 輸出하는것은 即 米國沃土를 外國에 輸出하는것과가튼 結果를 生하게되는셈이다 如斯한 農事政策은 避하지 안흐면 안된다 그리고 또 農産物輸出에 對하야 政府가 獎勵金을 交付하는 것도 結局 耕作地의 暴用을 招致할 念慮가 잇다 政府는 如斯한 獎勵金政策도 愼重히하지 안흐면 안된다 目下 政府로서 土地의 暴用을 阻止하야 이것을 保存하는同時에 農作物價格도安定시키는 法案을 確立하려고企圖中이다。(寫眞은 大統領)

蘇聯又復不法越境?

【新京十一日發同盟】 關東軍發表 一月 十日 午前八時 大烏蘇滿及 夾心子의 [illegible] 滿洲國領內에서 薪採取中의 滿洲國人 二名은 죠루우마야의 게페우監視隊에게 拉致되엇다 目下 詳細取調中인데 그結果如何로는 어떠한 嚴重抗議를 發할것으로 보인다

第一委員會 開會時刻을變更

【倫敦十一日發電通】 十四日의軍縮會議第一委員會의 開會時刻은 午後三時十五分으로 되어잇던바 各國代表部와 協議한結果 午前十一時(日本時間午後八時)로 變更하엿다

決裂後國際關係 惡化防止가要點

外務海軍兩省聯合會議結果

廣田外相回訓內容

【東京電話電通】 日本軍縮回訓案은 十一日의 外務 海軍 兩省聯合會議에서 大綱을 決定、다시 十二日、午前十時부터 外務省에서 繼續하야 外務側의 東亞局長、加藤軍縮課長、海軍側 豊田軍務局長外 [illegible]軍縮課長等이 參集하야 訓令의 細目에 關하야 協議한結果 兩省間의 意見은 完全一致되야 案文의 調整을 終了하엿다 따라서 午後一時半부터 首相官邸에 臨時閣議를열고 右 訓令案을 附議하야 廣田外相으로부터 그內容을 說明한後 會議經過及 將來의 對策等에關한 說明을加하야 全閣僚 異議업시 此를可決하고 岡田首相은 午後四時半 參內上奏 御裁可를 得하엿스므로 午後六時廣田外相으로부터 倫敦代表部에 訓電을 發送하엿다 訓令案은 三枚에亘한相當한長文인데 그內容은 左의 骨子에 基한것으로서 決裂을 豫想하고 國際關係의 惡化를 防止하는것을 主眼으로 한것이다

一、日本政府로서는 日本의 公正妥當한 軍縮提案에 基하야 참된 軍縮을 實現하야 國際平和를 招來하기를 熱望하는바이다 따라서 從來의 交涉에서 아직 充分한 說明을 하지못한 質的制限方式 即 主力艦航空母艦等 攻擊的武器의 廢乃至 徹底的縮減을 希望하는 日本軍縮案의 全貌를 明白히하야 日本의 公正妥當한 方式을 反覆披瀝하라

一、會議의結果 軍縮의 實質問題에 關하야 會議를 續行하는것이 不可能한 事態에 다다를 境遇에도 國際關係를부질업시 刺激함과 如한 方策을 避할것이다 따라서 如斯한 境遇에도 善後措置에 對한 會議開催를 要求하야 [illegible] 華府兩條約에 規定된 [illegible] 條項의 單獨條約化及軍備 [illegible]에 關한 共同宣言의 [illegible]等 國際的親睦增進의 措置를 明示하라

一、英國의 建艦通告案은 軍縮의 見地에 合致되지안는것으로써 共通最大限設定의 日本提案을 容認치안는限、全然 討議할 餘地가 업다고 認定한다

一、그러나 日本의 共通最大限設定方針에 對한 各國代表의 理解를 强要하는것은 부질업시 決裂의 責任을 日本側에 轉嫁케할 念慮가 잇스므로 구태여 固執할 必要가 업다고 認定한다

一、討議의結果 五國會議의 繼續이 不可能하게된 境遇에는 倫敦、華府兩條約에 基하야 會議는 終局되엇다고 認定할것이다 그러나 英國政府가 求하는 바와 如한 四國會議가 繼續하야 開催될 境遇에는 日本側에서도 옵저버를 出席케하는것도 異議업다고 認定한다 (寫眞은 廣田外相)

英陸海空軍當局 香港要塞構築企圖

【新嘉坡十一日電通】 日本의 軍縮會議脫退는 이제 旣定의 事實이되어 日本을 一員으로한 新軍縮條約締結이 絶望이되엿는데 當地에서 確聞하건대 英國陸海空軍當局에서는 별서 香港要塞構築을 企圖하고 이미 原案을 作成하야 英帝國國防會議에 列席키爲하야 來十七日 新嘉坡發 倫敦에 赴하는 東洋艦隊司令長官도레야提督이 右原案을 携行할 豫定이라고한다 그리고 當地는 華府條約第十九條의 太平洋防備制限協定에 依하야 要塞構築을 禁止되어잇던곳인데 昨年 日本이 同條約廢棄通告를 行한以來 同港의 要塞構築計畫이 研究되어오리이다

『옵저버』로는 榎本、藤田兩氏有力

【東京電話電通】 日本政府가 軍縮會議脫退後의 會議에 보낼 옵저버의 人選에 關해서는 目下 海外兩省에서 銓衡中인데 海軍側 옵저버로는 目下 海軍軍縮會議日本委員 海軍書記官榎本重治氏와 英國在勤日本大使館附武官藤田大佐가 有力視되다

軍縮會議難航

크리스마스休會를 맛치고 六日부터 再開한 倫敦軍縮會議는 日本對 英、米、佛、伊의 主張對立으로 決裂必至의 情勢를 馴致하게되엿다 即 米、佛、伊三國은 英國案에對하야 다만그通告期限에잇서서만 意見을 달리하나 原則的으로는 此를支持하야 日本側의 共通最大限協定要求를 默殺하려함으로 日本全權團은 드듸여 脫退를決意하고 本國政府에 請訓하엿는데 回訓의到着을 기다려 마츰내 十三日第一委員會에서 最後의態度를 表明하게 되리라고觀測된다

英米의態度

英米兩國의 建艦通告案을 中心으로 倫敦軍縮會議는 重大難關에 逢着하게되엿는데 英、米、佛、伊四國代表는 벌서부터 日本代表의 脫退를 豫想하고 右四國뿐이라도 新協定을 成立식히려하는氣運을 示現하고잇다 그러나 英國은 招請國인立場에서 어데까지 五國協定成立을 希望하고잇고 米國代表部에서도 太平洋防備上 어느國家보담도 關係가깁흔 日本을 除外하는데는 多少考慮하는 빗치보임으로 來十三日會議에 新提案을 提出하야 停頓된 軍縮會議를 挽回하지나안흘가하는 觀測도잇다 그러나 現行比率을 그대로 維持하려는 英米와 此를 否認하는 日本의主張과는 根本的으로 背馳됨으로 會議의前途는 全然暗澹하다。

A、A、A違憲判決

米國聯邦大審院은 지난六日 루지아나 精米業者의 加工稅不支拂訴訟에 判決을 나렷는데 結局 精米業者의 勝訴로 도라가게되엿다 이리하야 N、R、A와함께 루즈벨트內閣의 新政의 두支柱의 하나인 A、A、A(農業調整法)가 昨年五月二十七日 全的違憲判決로 N、R、A運動이 挫折된 뒤를이여 또다시 A、A、A가 違憲된것은 實로루즈벨트政策의 全面的潰滅을 意味하는것으로 이事件은 大統領選擧를 今年末에압둔 米國政界에 多大한衝動을 이르키고잇다

埃及의反英運動

埃及學生의 反英運動은 變遷과함께 한동안 平靜되여잇드니 지난六日 一英國將校가 埃及人에게 發砲하야 重傷을입히게 한 事件이 發生되자 形勢는 突然 險惡하게 되엿다 右發砲將校는 即時 憲兵隊에 拘留되여잇스나 이事件이 英帝國主義打倒를 絶叫하면서 反英스트라익을 이르키엿다

駐中大使更迭

廣田外相은 지난十日에 歸國한 駐白大使有田八郎氏에게 駐中大使就任을 要請하엿든바 有田大使도 이를正式으로 受諾하엿다 그리하야 有田大使는 不遠에歸國한 須磨南京總領事로부터 中國事情을 聽取하고 亦是今月末에 歸國할 有吉大使와의 事務引繼를 맛치고 二月中旬에 赴任하리라하는데 大使의 更迭과함께 日中兩國의 外交關係는 一層注目되여잇다

간듸氏의危篤

印度民族運動의 先導者로 印度民衆뿐만 아니라 全世界의 敬仰을밧고잇는 聖雄간듸翁은 일즉부터 왈다地方에서 身病으로 療養하고잇든바 最近에이르러 容體가 急激히 惡化되엿다고 傳한다

對伊石油禁輸는 軍事的으로無價値

伊政府代辯者聲明

【羅馬十一日發電通】 聯盟理事會의 對伊石油禁輸計議의 緊急會議를 압두고 伊太利政府의 正式代辯者는 十一日 如左히 그不當함을 指摘한聲明을 거듭發表하엿다

伊太利政府는 石油輸入禁止適用과 如何한 그것이 如何한것인가를 問하고 가장重大한 反伊行動이라고 看做한다。웨그런고 하면 石油輸入禁止는 非軍事的인 一般民衆生活에 가장 重大한 影響을 줄것이다 軍事用의 石油에關해서는 이미 長期間에 亘하야 相當히 充分한 供給을 하기에 足한 貯藏을 하여두엇다 따라서 伊太利로서는 對伊禁輸와 如한것은 軍事的으로 全然 無價値하고 一般民衆을 苦痛케만하는 反伊工作이라한것을 거듭說明한다

日曜氣配

▲株式 軍縮會議決裂에 依한 軍備擴張이 豫想되고 또 玉整理一巡으로 買氣가 再燃하려는모양으로 氣配强含 大新九五、一〇 鐘新一五〇、八〇 東新六六、一〇 日産一七四、五〇

▲期米 알마즌市勢라고 高價에는 손대기를끄리나 煎買와 押目買人氣가擡頭하야 底强으로 買氣가 潛在하엿다고보인다 氣配强含 二二、〇七一〇八

▲綿絲 氣配不變 大阪地方天氣陰

八面鋒

◇軍縮會議가 決裂되라하는때에 어대선지 日英同盟復活說이들린다。

◇風雨가大作하기前 陰散한天地에는 독가비도 橫行하는일이잇스니 枯骨의亂舞도 容或無怪

◇AAA가無效된대신에 土地虐使防止法案을 實施하겟다는것이 米大統領의意見。

◇人間의虐待도防止하기어려운세상에 이야말로 부처님가운대 토막가튼수작。

◇四百八名의 新人이 新春에 玄海灘을건너 故鄕의社會로 새일을하기爲하야 돌아오다하는 消息。

◇반가워할가 놀납다할가 學校는卒業햇스나 社會의入學難이 더욱甚하니 딱한노릇아닌가。

今日本紙四面

この會社
この保險

第一大規模的基礎을가진會社。第一훌융한內容을가진會社。第一信賴을集中하고잇는會社。保險料는싸고도多額의配當을實行하고또한優秀寬大한保險約款에依하야取扱을親切히하는會社。要略하야말하면會社도그提供하는保險도理想的인會社。이것이日本生命이다

(營業案內贈呈)

優秀한때문에가장큰

日本生命

大阪市東區今橋四丁目

000093

一月十日부터大公開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낮一時、밤七時十五分始映
高麗키네마社超特作品
原作監督……安鍾和氏
李源鎔…申一仙主演
銀河의흐르는情熱
朴齊行氏、李慶善氏
沈影氏、金貞玉氏
緊張의하날찬空氣에부다처明快한 빗을휘날이는銀河와가티우리살림을幸福이게하여줌니다地上樂園을建設하자는異彩잇는情緒純潔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血과惡魔
監督……랄루마가후氏
主演……가리·쿠퍼
몸기버니娘
街의爆彈兒
監督……青村操氏
主演……日本달다시氏
京城府桃花洞
電話龍山三一三番
桃花劇場

一月十日부터十四日까지
……上映時間表……
題名 一回 二回 三回
ニュース
漫畫
木曾の紅笠
大學の親方
松竹發聲ニュース
昭和十一年の幕開を行き!! 春の話題を獨占せる松竹映畫
眼と耳の新聞
コロムビア漫畫
道化師
ベニスの奇蹟
コロムビア映畫
小年競馬車
下加茂特作サウンド版
木曾の紅笠
高田浩吉主演
蒲田特作サウンド版
大學の親方
大學出の彼氏は『月給取』よりも『大工』の方がいいと駄々をこねるサレヂ明朗篇
十五日よりお待ち兼 天保安兵衛 戀愛祭華版
洋劇專門
浪花館

一月十日낮부터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七時부터始映
大衆料金 階上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大人二十錢 小人十錢
純粹大衆的二大巨篇公開
콜럼비아社超特作珠玉篇全發聲日本版
監督……조지·루드
나는착한사람이다
카우의一人과恰似하야世上에疑心으로艱辛히無罪되엿스며懸賞金과結婚까지의善人의結局은이러하다
松竹키네마社超特作時代劇
古野英二監督作品
市川右太衛門主演
まぼろし峠
義俠과義氣로雄猛한一人의勇士는風雲이急急한戰禍中에서左衝右突의大活躍은
▍次週豫告▍漫畫森の小人感激과哀傷的이며눈물로비저내인波瀾社作品『暴風雨』情炎에타오르는松竹作品『水上心中』
仁寺洞
電光一六三
朝鮮劇場

一月十二日부터特別大公開!
大衆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폭스會社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유-진포-드氏大作品!
大殺人호텔影
에드몬드로-氏 빅타마크라그랜氏主演
로스매리에아무스孃助演
場所는호텔마데나!新進探偵小說家의銳利한推想力과典型的探偵사이에이러난驚奇百%의殺人의怪奇
二人組의刑事의猛演篇
朝鮮名畫
影『그림자』
出演 羅雲奎 尹逢春 林生員 金光浩 李錦龍 全昌根
大都映畫社特作連續時代劇
中島寶三監督
狂亂誓女郞 後篇
阿部九州男主演
近衛十四郞 木下雙葉助演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白雪우에 성큼 성큼! (오늘창경원에서)

珍! 降雪祈願祭

北國江界地方에 雪旱魁로 木材運送이 總停止

【江界】 남국(南國)사람이들으면 신화(神話)가튼 눈나라이야기— 북쪽하늘밋 눈나라강계(江界)에서는 금년겨울에 강설 기원제(降雪祈願祭)를 지내엿다

녀름우량의 다소가 우리생활 거강에 직접영향이 잇스며 더욱히 농황(農況)을 좌우하는것은 누구나 잘아는바로 한발이 심하면 기우제(祈雨祭)를지내는 례가잇스나 「눈오라」고 천제지내다는 이야기는 일슥들은바업섯지마는 이것은 비의 필요만아는 남쪽나라 사람들이 하는소리 ——이땅동기운수교통은 「설매」를 리용한다 더욱히당지의 주요산물 목재(木材)를 편벌창(編筏場)강가까지 운반은 동기 「설매」에 국한되는것임으로 이곳경제계에 중심인 목재업(木材業)의성패는 동기운재(運材)에 달린것인만큼 일년가일반경기를 좌우하는것도 「눈」에 달려잇스다 금년은 겨울절반이 다가도록길우에 눈자최도업시 눈가뭄이심하엿슴으로 아직도운재에 착수치못하여 목재업자는당황중 지난 팔일오전열시 강계영림서장 주재하에강게목재업자와 영림서원의 참배로 강계신사구내에서 강설기원제가 거행 되엿다한다

一胎二男一女

【平壤】 평양부내 평천리(平川里) 동양제사(東洋製絲)직공 권성양(權聖洋)의처 서귀인(徐貴仁)(二七)은 지난 오일 이남녀를 일시에 분만햇는데 모자 녀가 다가티 건강하다 권성양은 아희부자로 십일세、십세、칠세、사세의 자녀를거느리고잇는터이나 일급 륙십전으로 극히 빈한한 생활을하는중인데 이번에는 한거번에 세자녀를어더 가족은 아홉명으로 갑작이 증가하여 극도의 생활고를 당하게되엿슴으로 동료 직공들의 동정금이십원을 모아 보내주워서 혹한의 곤난을일시나마 면케하여주웟다한다

四百餘共軍과 五時間交戰

雙方에 死傷者多數

【哈爾濱】 지난 어십일일새벽두시에 제○치안공작반(第○治安工作班)은 탕현양자하(湯縣亮子河)에 조상지(趙尚志)하운개(夏雲楷)장전복(張傳福)등이 인솔한 공산군 약사백명이 반거하야 잇는것을 탐지하고 이를습격할목적으로 심야진군하야 익일아츰륙시경에 동지에 도착하야 좌등소좌(佐藤少佐)의 지휘아래 교전 약오시간에 이르러 중앙소대를 지휘하던관장(關特務曹長)은 전사를당하고 공산군은 대타격을 당하야 복방산중으로 분산되엿다는데 현장에는 공산군의 유기시체열네개와 부상자삼십명을 버려두고 도망햇다고한다

업는民籍僞造 離婚訴訟是非

강원도원주군 판부면단구리(原州郡板富面丹邱里)사는 김란춘(金蘭春)(二七)은 현재 충남대덕군유성면 복룡리(大德郡儒城面伏龍里) 조준룡(趙濬龍)과 동거하고잇는 그의 안해 김련히(金鍊熙)(二一)를 상대로 얼마전에 경성지방법원에 다른 남자와 관계하고 잇다는사실을 드러리혼청구소송을 이르켯는데 피고김련히는 십일에 그청구 리유에대한 답변과 혼인무효(婚姻無效)청구의 반소(反訴)를 제출하엿다

그내용을 보면 김련히는 란춘과 소화삼년정월에 결혼식을하고 가리살아오다가 가정불화로 그해 십일월에 혼인예약(婚約)을 해소하고 경성친정으로 도라가서 우거하엿다한다

친정에서도 생활이 곤궁하므로 소화사년 팔월에 조준룡(趙濬龍)의 첩으로 드러가서 가리살아왓는데 그해십일월에 김란춘은 이사실을알고 경찰서에 데리고가서 말성을 이르켯스나 경찰서의 설유로 결국 단념하고그는 고향으로 도라가버렷다한다 그러고소화륙년 겨울에는 김련히의 친정어머니가 김란춘의 부모를 맛나 서로 가티 살게 하는것이 어떠냐고 의논해 보앗는바 저편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살고 잇는것을 그리 할수업는터이라고 응하지안헛다한다

그런데 뜻밧게 오륙년만에 이번에 리혼소송을 당하고서 조사해 보앗더니 소화삼년 오월십일일로 김련히를 그의 안해로 호적에 혼인계(婚姻屆出)을하여 두엇슴을 발견하엿다한다

그러나 그혼인신고는 김련히는 물론 김련히의 부모형제중에서 아모도 동의하엿도 업고 도장을 찍어준 일도 업는데 위조로 혼인신고를 하엿슴이 분명하다하야 그리혼소송에 답변하고 동시 원방으로 그 혼인무효청구의 소송을 이르킨것이라 하엿다 뿐만아니라 설령 김란춘의 주장하는 리혼 하는 리유가 정당하다 하드라도 리혼의 원인인 다른 남자와 가티 살고잇는 사실을 번연히 알고서 오륙년만에 이제야 소송을 이르키는것은 법률상으로 부당하다고 답변하엿다

仁川府內里에 覆面强盜

십일일 오후여덟시 오십분경에 인천부내리(仁川府內里)일백칠십오번지 원등(遠藤)전당포에 나히 이십사오세가량되여보이는 로동자비슷한 조선청년 한명이 복면을하고 드러와서 식도로주인을 위협하고 현금오백원을내노라고 강청햇다 엽방에 잇든 사람들이 이를 알고는 곳 경종을마우따리자 도적은 그만돈을이루지못하고 어데로모양을감초아버렷다 급보를 바든 인천서에서는 방금각처에 수배하고 범인을 엄탐중이다

不發爆彈으로 兩少年重傷

平壤飛行場에서 拾得

【平壤電話通信】 십일일 오후네시쯤에 평양부신리(平壤府新里)리재근(李載根)(一三)과 한수복(韓壽福)(一三)두명이 비행 륙련대(飛行六聯隊)의 폭격장(爆擊場)에서 불발폭탄을 주서가지고자 그집아페서 가지고 놀다가 별안간에 큰소리가 나면서 폭발하야 두명이 다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생명이 위중하다

基督申報問題로도 忠告委員派送

基青代表委員修養會서

조선기독교 청년회 련합회(朝鮮基督教靑年會聯合會) 주최시부府基督教靑年會代表委員修養會에서는 조선기독교회연례의 숙제인 분파쟁과분규를 청소할목적으로 신년벽두각교회와 관게 방면에 화평을일울 강조한결의문을보내서큰효과를주고잇다함은 조간보도와 갓지만 문제중에잇는 기독신보(基督申報)에 대하여도 아래와가튼결의를하야 당사자와 밋전조선교회에 충고하엿다고한다 또 찬송가의개편방지에대한 결의의 자세한내용은 아래와갓다

一、基督申報는 耶蘇教會의公器임은 누구나認定하는것을個人에게信託된權利를 濫用하는것은 基督教人良心으로는묵인할수업슨즉 速히歸本하라고 우리는 忠告委員을 派送하야 勸告하기로決議함

二、讃頌歌에對하야 教會의 가장重要하고 반드시 統一하여야할 讃頌歌를 教派的으로 改編하는것은 現代에 잇서 큰衝突인同時에 遺憾的 良心으로보아 賛成할수업는일 인즉 우리는 速히 이讃頌歌 統一을爲하야 努力하기로決議함

天氣豫報

低氣壓은沿海州에 七五二미리 日本西南地方沖에 七六二미리를表示하며 高氣壓은北中國으로부터滿洲、朝鮮으로퍼지고잇다 日本本州方面은 氣壓의配置가不安定이다 昨朝以來에小雪이잇섯스며今朝는滿洲、朝鮮은晴으며 日本內地는흐리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西北風이强하며맑고치위진다 京畿道全區도 西北風이强하며맑고치위진나 明日도今夜와갓다

昨日最高 零下 零度七
最低 零下十三度一
今朝最低 零下 二度七
今日正午 零下 二度八

特報 十二日午前八時三十分仁川觀測所發表=季節風이强하며 忠南、全南沿岸을 警戒할것 同日午前九時仁川觀測所發表 咸南、江原道沿岸을警戒할것

法定期間內小作權 農幕逐出로剝奪

惡地主輩의巧妙한奸計!

農地令에 又復大缺陷判明

농지령(農地令)의 중대한 결함을또하나 여실히 폭로한 사실이드러낫다

그것은 지주가 소작인의 소작권(小作權)을 빼앗스려할때에 농지령에 빗그러매워 소작키한 안에는 소작권을 이동할수업슴으로 이에 탈법(脫法)행위의간계(奸計)로서 소작인의 살고잇는 집을내어노코라고 소위가옥명도(明渡)를 강요하는방법으로 농토의 작권을 빼앗는 실례를 총독부 농촌진흥 시찰관이 발견하엿다한다

조선의 농민은 자긔 소유의 집한간도 가진것이업시 농토에 부튼집을 지주로부터 농토와가치 비려잇게되어 잇는형편이다

지주가 어떠한 명목을 부치어서든지 그가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집을내노하라고 강요하면 소작인은 자연히 소작권까지 내어노코 쪼겨나갈수밧게 업는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소작인을 보호할 법령규측이 업다 농지령도 소작권의 규정에 이것을 명문으로규정안한이상은 법령의 사회관념적확장해석(擴張解釋)에의한 판단이내리우면 모르되 사실상에잇서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소작인은 지주의 강압에 못견디어소작권을빼앗기게되는 경우가 매우만타는것이다 그리하야 농림국에서도 이것이 농촌에미치는 영향이만흠으로 방금 이에대한대책을강구하는중이라한다

千五百圓價格表記物 內容은休紙封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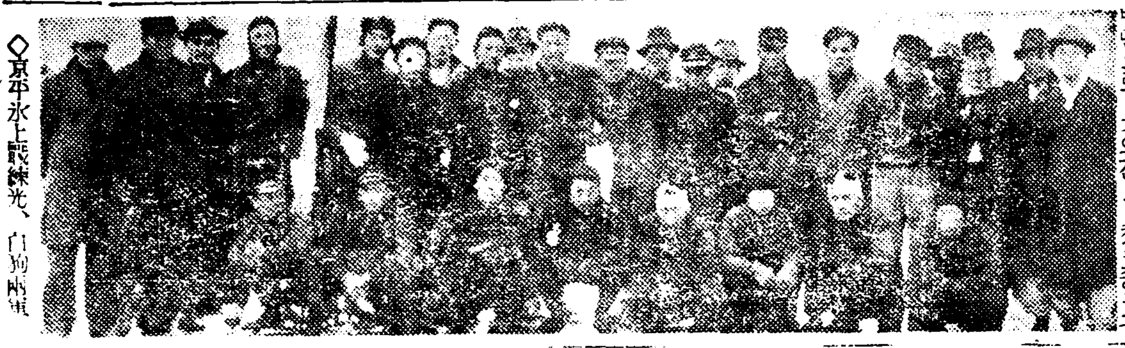
引換證만가지고商品을詐取

本町署犯人猛搜查

【가격표기】(價格表記)를 리용하야 일천오백원을 사기해먹은 교묘한 사건이잇섯다

례산군 오가면 좌방리(禮山郡吾可面佐方里) 강재순(姜在順)(三一)은 십일에 례산역전 조선운송주식회사 지점에 봉투삽십장을 너흔 헌봉투를 가지고가서 현금일천오백원이 드럿다고하고는 경성역으로 가격표기로서 보내노코 그날오후두시에상경하엿다

그길로 시내남대문통 사정목 령목송길(鈴木松吉)의 상점에가서 전기가격표기증명을 보이고 발동기다섯대 오백원어치와 정미기게 구백구십원짜리를 례산으로 보내게하고는 령목을 자동차로 례산역까지 다리고 가서 거기서 역전에 잇는 미곡상성광영(成光永)에게 마껴두엇든 가격표기인환증을 령목에게 주고 발동기와정미기게 인환증을 밧어서 그것을 차저서 처분한후 다시령목을 다리고 십일밤에 상경해서 그는 시내삼각정(三角町)중앙호텔에 드럿다고한다 령목은십일일아츰에 경성역에서 가격표기물을 차젓드니 돈은업고 봉투뭉치뿐이므로 그제야 속은줄 알고 중앙호텔에 쪼차가니까 그는벌서 그날새벽세시경에 어데로 모양을감



◇京平氷上戰練光、白狗兩軍

運動競技

全日本氷上五千米에 新進尹世植優勝

宛然! 朝鮮選手獨舞臺

【日光電話電通】 第十一回全日本學生氷上競技選手權大會 스피ー드競技最終日은 十二日午前十時二十分부터 日光細尾링크에서 五千米、一千米릴레ー의二種目을擧行한바 우리氷上界의新進 尹世植(明大)君이 優勝하엿다

▲五千米 (오픈코ー스)
1 尹世植(明大) 九分一七秒八
2 金永河(明大) 3 杉原(早大) 4 久保(慶大) 5 山田(早大) 6 樋口(早大)
得點、明大十一點、早大七點、慶大三點

올림픽氷上選手 가르미슈到着

【가르미슈바르텐키르헨十一日發同盟】 第四回冬季올림픽大會日本氷上代表選手團은 十一日午後七時半 閑備地가르미슈에 到着하야 樂隊의 奏樂裡에 宿舍월프스하-덴으로 向하엿다 選手一同은 자못 元氣가 旺盛한데 今日은 雨天으로 降雪이업고또 飛躍臺에도 雪不足으로 練習은 不可能이다

高麗卓球聯盟 創立總會經過

京城卓球聯盟創立總會는 十一日午後七時부터 中央基督教靑年會講室에서 열린바 曹明煥氏의 經過報告가잇섯고 臨時議長 張權氏가 規約을 通過시킨다음 不遠에 各地代議員會를 召集하기로 되엿는데 臨時理事十名을 左記와가티 選擧하야 同理事會에 一任하기로되엿다한다

朴成根、趙炳學、李聖實、張權、田錫鎭、朱興根、金鍾□、朴在峻、申國權、曹明煥

神宮氷上스피드部에 李仁源君斷然優勝

女子部엔崔東珠孃이優勝

朝鮮神宮 氷上競技大會 男女스피ー드競技는 十一日午前十一時부터 淸原里링크에서 열린바 이날의 競技經過는 다음과갓다

【女子五百米】(타임레ー스)
▲1 崔東珠(京保) 一分一一秒六
▲2 前田(龍谷) 一分一七秒二
▲3 韓貞順(京城女高) 一分二二秒
▲4 金炳烈(京城女高) 一分二三秒八
▲5 金錦伏(京城女高) 一分二五秒
▲6 和田(龍谷) 一分二五秒八
▲7 松本(龍谷) 一分二六秒六
▲8 李貞卿(京城女高) 一分二六秒九

【男子五百米】(타임레ー스)
▲A組 1 金鍾勳 一分四秒四 2 李鍾鉉 一分五秒八
▲B組 1 崔昊洙(徽文) 五五秒 2 高甲楷 一分
▲C組 1 朴佳用(徽文) 一分八秒三
▲D組 1 盧英九(徽文) 五八秒 2 □信基(中東) 一分十五秒七
▲E組 1 方熙景(京電) 一分五秒 2 車潤鎬(培材) 一分一六秒
▲F組 1 劉仁順(江界) 五六秒 2 宋在鳳(普成) 五九秒
▲G組 1 金順淵(新義州) 一分三八秒 2 鄭內彦(京城) 五六秒六
▲H 1 孫壽錫(公民) 五六秒六 2 朴永哲(普成) 五九秒八
▲I 1 李仁源(光成) 五○秒五 2 金河吉(江界) 五五秒五
▲J 1 尹明洙(江界) 五三秒
▲K 1 邊成厦(三務) 五一秒八
▲L 1 崔明煥(普成) 一分五秒九 2 金基鎬(平安) 五七秒五
▲M 1 朴義燮(徽文) 一分一秒二 2 閔內院(徽文) 一分七秒

寬眞은 李仁源君과 崔東珠孃

▲五百米順位 1 李仁源(光成) 2 邊成厦(三務) 3 尹明洙(江界)

【女子千五百米】(오픈코ー스)
▲1 崔東珠(京保) 三分四九秒四
▲2 前田(龍谷) 四分一二秒四
▲3 穎川(同上) 四分一五秒四
▲4 金炳烈(京女高) 四分三五秒七
▲5 渡邊(龍谷) 四分三六秒二
▲6 韓貞順(京女高) 四分四六秒六
▲7 藤田(龍谷) 四分四八秒
▲8 松本(同上) 四分五一秒四
▲9 和田(同上) 四分五二秒七
▲10 豊岡(同上) 五分○秒三

【男子五千米】(오픈코ー스)
▲A組 1 李仁源(光成) 一○分二○秒九 2 邊成厦(三務) 十一分十九秒六
尹明洙君과 崔昊洙君은 途中에서 顚倒되여 棄權함
▲B組 1 金河吉(江界) 十分四六秒一 2 劉仁順(江界) 十分四八秒九 3 孫壽錫(公民) 十二分十秒
▲C組 1 盧英九(徽文) 十二分八秒 2 金基鎬(平安) 十二分三二秒九 3 宋在鳳(普成) 十三分九秒
▲D組 1 高甲楷(徽文) 十二分十四秒 2 金承淵(三務) 十二分十五秒四
▲E組 1 金鶴洙(京城) 十二分一三秒 2 趙成德(徽文) 十二分五三秒
▲男子千百米順位 1 李仁源 2 金河吉 3 劉仁順 4 邊成厦

運動界人事集會

▲朝鮮女子體育獎勵會에서는 來二十五日에열리는 同會主催의 第二回全朝鮮女子氷上競技大會에對하야 討議코저 同會委員會를 十五日午後四時半부터鍾路YMCA社交室에서열리라한다

▲金教雲君(普專籠球部主將) 鍾甲咸北雄基에서 遭祖父喪

謹告
今月十三日(第二月曜日)은定期公休日이오나今月에限하야平常과如히開店하나이다
但舊正月一日(一月二十四日)은休業하옵고二日、三日은午後六時까지開店하오니海諒하심을伏願하나이다
和 京城 和信
平壤 和信支店

從四位勳四等李建春氏以宿患本月十一日(陰十二月十七日)午後八時廿分別世 茲以告訃
昭和十一年一月十二日
嗣子 孫 弟 護喪 洪

記念用 賞品用 印入タオル
優勝旗 團旗 校旗 會旗 國旗 船出 附屬品 式旗
大賣出
印 祥 天
京城府長沙洞八拾五番地
東洋染織捺染部
電話光一三二八 振替京城二○六四八

好職業
男女適近不問自宅執筆業○動人學生最優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型錄請求は入第 無料送呈

彼女とて毒 … 付
でなし疑ひあらば
毒掃丸を召上れ
気持よく体毒を排泄
代せ五十錢一円二円
薬屋にあります

コロムビア ポータブル
第五五號 ¥25.
本器를試聽하실時는 昭和十年의三大히트 「船頭可愛や」 「夕日は落ちて」 「紺屋高尾の唄」를드르시오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日本蓄音器商會

肺專門療養院
院長 醫學博士

恩給 林商會

せきに コデナン
甘味로服飲키쉬운シロップ劑로好評!!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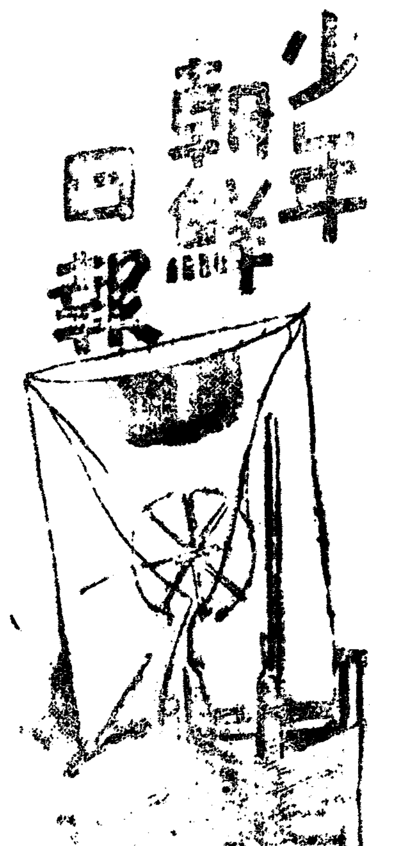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入院隨意 診察
安洞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一三一番)

ヤマピリン
감긔와 몸살에 最新特効藥
初期의 感氣는 萬病의 根源이
嚴冬은 왓다! 感氣의 警戒期!
株式會社 山本回生堂製藥所

◇奇人奇聞의片信!
동양唯一 觀相師
運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京城府昌信洞六八七
姜南月觀相所

少年朝鮮日報



童話

바보두사람

崔秉和

조대(趙大)와 장이(張二)는저울에달면 무겁고 가벼운것이업스리만치 똑가튼 바보엿습니다 두사람이 다른것이 잇다면조대는 틈틈이 일을하고 잇는데 장이는 아조 게을너빠저서 일을 도모지 안히하는것입니다.

조대는 일해서 번돈을 마루밋헤 파뭇어두엇습니다. 그리고 때때 날불내 끄내여서 절넝절넝 돈소리를내면서 세여보는것이 오죽 하나의 질거움이엿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어리

석은 궁리를 하군하군 하엿습니다.

『이것이 내년이되면 갑절이된다. 그러면 소를한마리산다. 소는 암소를사서 색기를 나케한다. 색기를 나커든 색기를파라서 돈을 만들자. 그돈으로 또 암소한마리를산다. 색기를난다. 색기를 팔자. 이번에는 두마리를 살수가잇다. 그러면 집을짓게된다. 논을산다 방을산다. 이러케하는동안에 큰부자가되다』

하고 이러케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면 고만 침을 께ㅡ흘리고 혼자서 조와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조대는 급한 볼일이 별안간 생겨서 먼ㅡ길을 떠나지 안흐면 안되게되엿습니다. 조대는 근심이생기게되엿습니다.

『자! 저돈을 엇더케하면 조흔가.』하고 궁리하고 또 궁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조흔방법을 생각해낼수가 업엇습니다.

『머나먼길에 돈을가지고 갈수는업다. 돈을가지고 길을가다가는 일허버리거나 불한당에게 빼앗길 염려가잇다. 그러다고집에두고가면 도둑놈이 훔처가면 엇더커나 아! 그럿다. 조흔수가잇다.』하고 조대는 손뼉을치면서 깃버하엿읍니다. 이우에 업슨조흔방법을 생각하엿읍니다.

조대는 즉시 담밋테 흙을파고 그속에돈을파뭇엇읍니다. 그러나 그러케해도 마음을 헐놀수가 업스므로 이번에는 담에다가 『이곳에 은(銀)설흔량을 감추지 안이하엿다』하고 크게 써붓치엿습니다.

『자! 자! 이러케하면 염려가 업다. 감추지 안엇다고 썻스니간 누구든지 돈이 잇스리라고는 생각지 안흘것이다. 흥!』하고마음을놋코 길을 떠낫습니다.

二

조대가 하는꼴을 자세히 보고잇든 이웃에사는 장이는 즉시 담미테 땅을파고 돈을 끄내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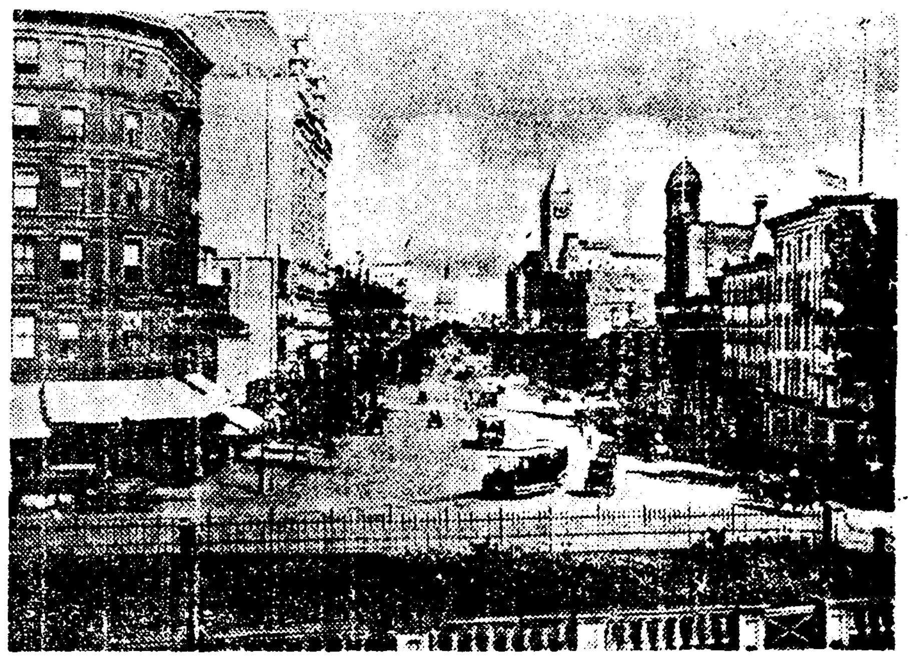
『이게 웬떡이냐. 이게 웬떡이냐』하고 조와하면서 가지고갓습니다.

그러나 조대가 도라와서 돈 일허버린것을 관리에게 호소하면큰일나겟스므로 즉시 『이웃에사는 장이는 훔치지안엇다』 하고 담에가 써노앗습니다. 끗

만국서울구경

(一) 미국—워싱톤

우리동네 순돌이는 서울구경을 간다고 서울로 올라가더니만 이번에는 만국서울을 끌고로 구경하겟다고 려행을떠낫다나。가는쪽쪽 우리에게 편지를 하야 주기로 약속을 하영。



양지。맨처음 미국서울 와싱톤을 들린 모양이야。거긔서 편지를 하얏겟지。

아죽 담은 나라 서울은 보지 못 하얏다만은 미국서울와싱톤이야말로 어느나라 서울보담도 조흘것 갓다。첫재로는 깨끗하고 둘재로는 넘어 싯그럽지도안흔것이 사람살기에 아조 훌륭하단말이다。거리를 나서보면 길이 곳바둑판가리 쭉쭉뚤린데다가 갓금갓금 바퀴人살처럼 한거리를 에워싸고 여러갈래의 길이 뻐처잇단말야。그런데 길좌우편으로는 나무가 쭉들어섯는데다가 거리거리 조그만 공원들이 만지 안켓니? 이 와싱톤이란시가는 지금으로부터 일백사십여년전 미국이 독립된이후맨든것이란다。그때 독립운동의수령으로서 미국의 첫대통령을지낸 와싱톤이란이의 이름을 떼어서 서울이름을 지은 것이라

징 그런데 『유니온 스테슌』이라는 정거장에 나리니까 정거정아프로 커다란 광장이 잇드군말야。광장도 경성역광장보담 넓고 또 아조 아름답게 꾸며노핫겟지。거긔서 남으로 얼마가면 커단 집이 잇는데 그집이 미국의사당(議事堂)이거든。그리고 그의사당집중우에는 두길이나 되는 어마 어마한 상(像)이 하나 잇는데 그것이 자유의상이라는 거야。 의사당을 중심삼고 서북편으로 좀 나가서 대장성(大藏省)이니 륙군성(陸軍省)이니 모든 관청이 늘어서 잇단다。 백아관(白亞館)이라고 떠드는 대통령의 관사(官舍)도 그 근처에 잇지。동봉해 보내는 사진은 바로 의사당에서 관청거리로 통하는 그길을 백인거리란다。그길을 펜실바니아 가라고 한다나。

(사진은워싱톤의큰거리)

정자나무밋 조회시간 (朝會時間)

밥 다 먹엇거든랑 모두 모여라. 늣게오는 아이는 떼어 돌릴테니 어서 어서모여。

×

수돌아 너는 무엽 그리 씹고잇니。밥 먹다말고 뛰어 나오게로구나。

복순이 너는 코에 부튼 밥풀을 떼어라. 밥튀정하는 애가태 보기실타.

강호야 너는 왜 옷고름을 잡아떼엇니. 반찬때문에 너의 형하고 또 싸왓구먼 내가 잘알지.

영선이 너는 왜 훌적거리고섯니. 보시기를 깨트리고 어머니한테 쥐여백혓지。

부전아 너는 왜 이리 가차히 오지 안코 맨뒤에서

● 비실비실해。아버지 병환이 밤새 좀 나으시든。

올치 귀동이너도 잇구나 간밤에 오줌싸고 소금어드러다닌애。북그럽다고 다라나면 못써。

자ㅡ 우리동리 우리또래의아이가 다 모엿구나. 나까지끼우면 일곱동무. 까치마을 북두칠성이 우리란다. 늘 모여노는 이정자나무밋 히지만 저녁이 아니면 다 모이기 어려운 이자리、아침마다 한번식모여 얼굴이나 마주보고 헤여지자。

(왕방울)

방울이와도적놈

金湘旭

라디오

十二日(日曜)(第一放送)

聽取者五萬突破記念어린이大會 —京城府民館으로부터—

◇午後六時 兒童劇吳鳳 全二場 (配役) 吳鳳…徐景源 官吏…李伯俊 土民 一…康寅洙 同 二…趙鳳煥 同 三…金泰晳 同 四…洪東植 旺新學院兒童 指揮 金泰晳

◇同六時二〇分 日曜兒童新聞

▲聽取者五萬突破記念放送과實演의밤 (第二放送)

◇同六時三〇分 韓相龍

開會辭 … 大笒 細笛 奚琴과管絃樂 靈山會像中 잔도도리 下絃 念佛 打鈴 金駿泳編曲 大笒 金永根 細笛 李炳祐 奚琴 閔完植

◇同七時三〇分 西道立唱 管絃樂 DKO-케스트라 一、놀양 二、아산打鈴 三、뒷산打鈴 柳開東 金泰運 金玉葉 李眞鳳 張香蘭 孫眞鳳

◇同 七時五〇分 歌謠曲 一、꿋을찾고…李冕相作曲 二、新二八青春…同 三、가을의노래…金冕相作曲 四、順風에돗달고…古關裕而作曲 五、먼동이터온다…金駿泳作曲 六、處女總角…同上 鮮于一扇 姜弘植 伴奏 DKO-케스트라

◇同八時一〇分 舞鼓 元舞 朴綵雲 脇舞 趙占紅 同 金綿珠 同 文明仙 同 文山紅 同 洪芙蓉 同 孫瓊蘭 …… 柏 金花香

◇同八時二五分 農夫歌 宋萬甲 金世俊 李東伯 曺鶴鵡 丁貞烈 金素姬 吳太石 愼淑 丁南希 李奇花

◇同八時四五分 放送舞臺劇 喜劇「도라지꼿」 全一幕 —朴珍作 (配役) 金英根(靑年小說家)…金昌基 金哲洙(그의아버지)…千人三 李春成(산人골捕手)…金聖雲 입분이(그의 딸)…卜惠淑 三뭉이(英根의집下人)…尹星畝 尹玉瓊(英根의愛人)…姜石燕 아주머니(哲洙의妻)…申銀鳳

十三日(月曜)

◇午後〇五分 日用品時勢 古談 百忍堂 白重彬

◇同一〇時=(鮮滿交換放送)=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短歌 大丈夫 鼓手 林鍾成 丁南希 라듸오·플레이·미ㅡ팅 出演 朴珍 舞臺裝置 金雲善

◇同三時一五分 營養講座(一) 人生과食物 金浩植

◇同六時 라듸오世界一週修學旅行 獨逸(一)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洪性夏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醉客의醉態 李晶燮

◇同八時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寧邊歌 四、자진배따락이 五、노래가락 六、唱夫打鈴

◇同八時三〇分(東) 管絃樂 李英子 (近代現代의音樂第一回) 解說 組曲 발토ㅡ크作曲 一、모데라ㅡ토 二、알레그로몰토 三、알레그로·삐빠ㅡ체 四、몰토·랑킬로 五、크모ㅡ도·六、終曲·알레그로 指揮·齋藤秀雄 解說·太田太郎 新交響樂團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서라世上事 二、唱劇調水宮歌 鼓手 池龍九 吳翡翠

曆

一月十三日(月) 十二月舊己丑(小)十九日 甲午·金·心·執
●祭祀·裁衣에見합
●小寒六日(舊十二日)
●大寒二十一日(舊二十七日)

謹賀新年

榮州

榮州邑內 官公職員一同

榮州郡浮石面龍川市 雜貨部 穀物部 布木部 浮石商工組合 振替京城二三三六〇六

榮州郡浮石面龍岩里 金思定

榮州穀物商組合

榮州郡丹山面 職員一同

榮州郡丹山面玉帶 丹山釀造場 主 朴炳秀

榮州郡丹山面玉帶里 綢緞布木 雜貨 日興商店 主 金哲思 金鎬欽

榮州郡丹山面玉帶 永昌穀物商店 主 李虎基

榮州郡浮石面寶[?]里 崔相奎

榮州郡浮石面寶[?]里 閔丙鞆

榮州邑內 榮州印刷所 主任 慶北道議員 全河璟

榮州邑 高麗洋服店

朝鮮慶北榮州邑內 洋品百貨 文具紙物 運動具 洋緞類 手藝材料 文化屋第一店 第二店 慶北線醴泉邑內

榮州邑 榮州釀造株式會社

榮州文榮堂藥局主部 朴日成

榮州邑 榮州興業株式會社

榮州郡丹山面屏山里 黃潤德

榮州郡 順興面事務所 職員一同

榮州郡 順興釀造場 主 安承沅

榮州郡順興面邑內里 金昌徽

伊山面 李裕和

慶北榮州 金泰斗

榮州郡伊山砂防事業區 市原馨 崔興澤

榮州郡浮石面林谷里 張鳳千

榮州郡文榮面釀造場 主 手塚幸夫

榮州郡浮石面上石里甘山 金海鎭

榮州郡浮石面上石里甘山 孫繼源

榮州郡榮川市 普昌醫院 朴昌根

榮州郡榮川市 海陸物産委託販賣 木炭及材木商 趙鳳仁

榮州郡榮川市 榮一精米所 權五秀

榮州郡榮川市 料理 韶川館

榮州郡榮川市 信興運送組 崔元吉

榮州警察官 浮石駐在所 藤野巧

榮州郡榮州面上望里 全奎昶

奉化郡乃城面文丹里 黃士欽

榮州郡丹山面玉帶市 南渭鎬

榮州郡丹山面沙川里 徐丙表

榮州郡丹山面沙川里 徐庭純

榮州郡浮石面寶[?]里 金熙業

榮州郡浮石面寶[?]里 崔聖恩

榮州郡浮石面寶[?]里 丁永燮

榮州郡浮石面寶[?]里 李柱春

榮州郡浮石面愚谷里 金業麟

榮州郡浮石面愚谷里 金聖壽

榮州郡浮石面寶[?]里 閔丙善

榮州郡浮石面甘谷里 宋文翼

榮州郡浮石面甘谷里 朴炳斗

榮州郡浮石面甘谷里 李文熙

榮州郡浮石面上石里 金達鎬

榮州郡浮石面上石里 金泓鎬

榮州郡浮石面龍岩里 李出浩

榮州郡浮石面甘谷里 閔丙鞆

榮州郡浮石面甘谷里 宋周善

榮州郡浮石面上石里甘山 金性鎭

榮州郡浮石面上石里甘山 崔昌夏

榮州郡浮石面上石里 金道鎭 徐丙玿

榮州郡浮石面上石里高山 金德圭

高敞

全北高敞郡廳 郡守 崔學洙 外職員一同

全北 高敞郡面友會

全北高敞教育會

全北高敞郡初等學校 教員會

財團法人高敞高等普通學校 兼任理事 洪鍾轍 理事 姜大湜 理事 李休烈 理事 愼鏞植

全北道會議員 陳萬洙

全北高敞郡邑內里 三省醫院 公醫 李常揆 電話九番

茂長面茂長里 一山堂醫院 公醫 朴德根

星松面三台 鄭泰煥 鄭東煥 鄭康煥

高敞面蘇谷里 柳浩善 面協議員 柳周善 柳最煥

高敞郡産業組合

高敞郡郵便所長 鈴木保治 興德郵便所長 淺野喜八郎

高敞郡邑內里 高敞警察署

高敞郡新林面盤龍里 金永久

高敞郡海里面松山里 成夏昇 成余洪

高敞郡邑內里 高敞醫院 院長 徐炯南 電話一二七番

高敞郡新林面法止里 金百洙

松場興德支店 高敞茂長外八個所出張所 主任 朴柱楺

固城

固城郡東海面甘西里 學校評議員 李武申

東海面面事務所 面長 林炳殷

固城郡廳 郡守 盧台植

固城蠶漁業組合 理事 金東煒 固城支所 固城邑內埋立地 電話四一番

固城邑東外洞昌榮堂 乾材各種貿易 朴禧柱

馬岩面章山里 面協議員 許洪道

固城郡 介川面事務所 職員一同

介川面玉泉寺 住持 吳官守

大可面事務所 職員一同

固城郡永面縣蓮花里 中島支店

固城邑 道議員 李甲用

固城邑固城醫院 公醫 李鍾完

固城郡 公立學校長會

固城邑西外洞 面協議員 李澄權

固城邑 固城電氣株式會社

固城邑固城金融組合 理事 岩田寬犬

固城邑 舞鶴金融組合

固城面職員一同

固城邑 實業家 潘基塢

固城面梧山里 李相鳩

哥面松鶴里 有志 李鎭千

東海水利組合長 李采甲

固城邑 日用百貨店 主 金鐵基

固城面梧山里 李龍洙

固城郡九萬面華林里 面長 崔洛顯

固城郡馬岩面寶田里 蠶業組合副組合長 姜斗星

下二面事務所 面長 崔載浣

下一面春岩里釀造場 主 金占祚

二山面事務所 面長 李起在

固城金融組合 組合長 朴永用

巨流面銀月里 實業家 李在權

大可面尺亭里 諸廷鐸

固城郡永縣面長谷里 協議員 吳尙甲

固城郡永縣面蓮花里 釀造場

固城面月坪里 金基元

固城郡下一面鶴林里 崔文煥

固城郡東海面外山釀造場 主 崔載玕

固城郡下一面事務所 面長 崔璀模 外職員一同

固城郡下一面事務所 面長 崔璀模

固城郡永吾面永大里 永大釀造場

固城邑理髮館 崔再植

固城郡東海面龍亭里 姜玄根

固城郡馬岩面寶田里 李執中

固城邑米市場通 布木商 丁正實

面協議員 李判洙

固城郡固城面大平里 區長 李英實

面協議員 諸鍋根

千光爵

固城郡會華面背屯里 醫生 具滄瑋

固城郡會華面背屯里 逸東醫院 院長 李濱浩

固城郡會華面背屯里 面協議員 徐瀅實

馬岩面章山里 有志 許聖求

巨流面事務所 職員一同

東海面章基里 田井重

東海面楊村里 醫生 李泰河

永縣面鳳鉢里 姜太璡

固城郡三山面米龍里 李濤鎬

三山面屛山里 徐炳壽

下一面松川里釀造場 主 崔瀷鎬

下二面月興里 姜鶴中

三山面三峰里釀造場 主 姜大興

일홈조흔貯蓄組合 大不正事實綻露!

被害者는모도가極貧者또는婦人들 —幹部等刑務所에收監—

【馬山】근래 마산지방에는 시민을 롱락하는 黃鳳계(假名)와 조합(組合)이 발호하야 이들 그 관은 거의 복마전(伏魔殿)화한 감이 업지안튼데 요사이에와서 또다시 고리조합(高利組合)에 중대부정사실이 발생하야 일반의 이목을 충동시키고잇다 마산부 만정(萬町)상산저축조합(三山貯蓄組合)과 합산(合山)저축조합은 이명동신(異名同身)의 긔관으로 이것을 주간(主幹)해오든 송석수(宋石水)(假名)는 부회의원 김모(金某)외 기생 남금향(南錦香)(假名)과 함안군 군북 황금식(黃錦植)(假名)과 결탁하야 칠천원의 대금을 사긔편취하랴다가 발각되여 형무소에 수용되여잇는 대이사건이 발생한후 조합원측에서 잔무정리코저 장부를검열하엿더니 의외에도 약이만원에 갓가운 공금을 자긔친척들에게 부정대부 혹은 부정소비한것이 발로되엿슴으로 일반 조합원은 대경실색하야 정리위원을 선정하야 내용을 엄밀히 조사중이라는데 이에 롱락된 조합원은 대개가 빈궁에 쪼들리는극빈자 또는 부녀들의 한푼두푼 모흔 눈물 어린 금전 이라는바 이러케 피석긴 금전을 일개 흡혈귀(吸血鬼)의 창자에 기름을 끼우게하고 자모원한에사모처 살긔등등하여잇는데 더욱이나 가사역(假事役)외기타역원이 종래로 사무검열을 진행할때에 이런부정사실을 그대로 간과하여잇슴에 대하여 그 배임(背任)내지 책임문제로 사건이장차 복잡화할것이라하며 장차사직의 청주가나리는대로 그추상(醜相)이백일하에 폭로되리라 한다

一部地主反對로 紛料畢竟再燃?

再次訴訟提起等決議

朝鮮産業白紙委任狀事件

【新上】함남정평군(定平郡)을위시하야 남부오개군에 관계되조선산업주식회사 백지위임장(白紙委任狀)사건은 일단락을 지은듯이 뵈이드니 정평군에 거주하는 예전지주들은 지난칠일신상(新上)에 모혀 간담회의 형식으로 강경결의를 하야 문제는 재연될듯한데 저들예전지주들은 현재의 소유자인 조선금융주식회사(朝鮮金融株式會社)에 도루사기를 교섭할것과 이에성공치못하면 소송의형식을 변경하야 재차 소송을 재긔할것등의 멧가지를 결의하엿스므로 일반은 그결과를 자못주목중이라고 한다

消防組出初式에 組員一名慘死

【寧遠】경남의녕읍 소방조에서는 매년가치에서 거행되는 소방수출초식을 신년벽두로 지난일일오전십시에 의녕시장에서 거행하며 무서운화재에 마읍을조리든 시민에게 맹렬한련습으로 소방수의위력을 보인남어지 끄트로 오전열한시반경에 불타고남은 가설한집을 넘기랴다가 불행하게도 넘어지는나무(棒)에 소방수일명이 두부를치워서 출혈을 만이한남어지 오후일시반에 영영오지못할 저세상으로 가고말앗다。

그는 의녕읍중동(中洞)에 거주하는 하재두(河在斗)라는 당년삼십팔세된 청년으로 지금으로부터 십일년전에 의녕소방조에 가입하여 우국것열심으로 노력하여온 공로자이라고한다 그러나 그는혼자서 젊은처와 어린두딸을읫슬고 것치려운세상에서 먹고살기에 노력하든터이라 불의에변을당한 그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하다고한다

咸安에凍死屍

【咸安】지난 팔일에 함안 군북(郡北)가야(伽倻)간 마진도로(馬山晋州道路)변에서 참혹하게도 사십이 넘은 남자가 넘어저잇는 것을 지나가든 사람이 보고 몸을 흔들며 일어나라 하엿스나 그는 벌서 시체가 되엿슴으로 곳 가야주재소에 계출하야 시체를 검시한결과 그는 주소를 알수업는 행인으로서 굼주린 창자에 령하십도이상의 치위에 그와가티 동사한것이라 한다

平山郡一帶엔 飮料水도沽渴

【南川】황해도평산군일대는 가을이래 사오개월동안 한발(旱魃)이 계속되여 추경작(秋耕作)인 보리농작물이 고사상태에 잇스며 작금에일으러는 음료수(飮料水)까지 절핍되여 만흔농가의 명년도 농형을매우 우려하야 인심이 자못흉흉하다한다

平南道明年度豫算 五百萬圓以內?

新規事業費는僅二、三十萬圓

【平壤】평안남도에서는 명년일년도예산을 각과의 요구예산을안무(安武)지사와 하야(河野)내무부장이 청취후 취사는 지방과에서 세입예산을 정사한다음에 결정하게될터이므로 목하 지방과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상세를 조사중이다 명년도부터 궁민구제사업이 업서지므로 예산총액도 금년의 오백이십팔만원보다 감소하여 오백만원이내에 머저질모양이다 금년도의 긔채는제삼차 궁민구제사업 오십삼만원 평양도립의원 이십삼만원 진남포의원 팔만원 합계팔십사만원에 달하엿스나 명년도에는 긔채가 현저히 감소되여 자연총예산에도 영향이 큰터이나 안주고보(安州高普)의 긔부금삼십만원、기타 이、삼사업의 팽창으로 금년보다 삼사십만원의 감소로 보게되는 그리구 신규사업에 사용할수잇는경비는 겨우 이삼십만원정도로보혀 긔대는 극히 희박한터이라한다

平壤監督局員 現地에出張調查

泰川郵所能業後聞

【泰川】긔보=태천우편소집배인맹파사건에대하야 평양체신분장국(平壤遞信分掌局)감독과에서는 대경하야 지난팔일 조사원으로복전덕미(福田德美)씨를 파견하야 소내의 사정과 집배인대소장 사무원간의 관계등을 조사하는동시 임의 그만둔 집배인오명을 일일이 방문하야 의견을 청취하는동시 우편소전체에 엄중한감독을 가하야 종내의페해를 일소하야 버리리라는데구일왕방한 긔자에게 대하야 중요문제를 들어 아래와가티 말하엿다

調查員福田氏談

저로서는 상관의 명령에의하야 조사하야 보고 할뿐임으로 명확한 의견과방침을말할수는업슴니다

一、集配人能業問題 이문제는 이제조사해본 결과집배인의취한태도가 온당하다고는 말할수업습니다 소장이 승급식혀주지안흔까닭도 잇지만 종경을합니다 유감이지만 아마다시 채용하게야되지안켓지요

二、村落委托配達問題 위탁배달은 물론 엄금하겟슴니다 엇떠한산골이라도 위탁배달은 규측상 절대로 허치안슴니다 우리는 우편소의하는것을 감독하고 우편소장은 배달을감독하는것이 책임이니까 이제부터는 우편소전체에 일층 엄중한감독을 가하야 절대위탁배달을 엄금케할방침입니다 그점만은 안심하시요

三、二日行程宿泊地指定問題 규측상 이를배달에는 전부터 숙박지가 다ㅡ정하야잇슴니다 그런것을 배달부가 리행치안는것이니까 이제부터는 일일이 리행식히겟습니다

四、宿泊料實發支給問題 이것은규측에는 머라고 정하야잇지안흐니까 우편소장이 지방형편에따라 되도록할것입니다 자면 급료에 숙박료를 포함하야주던지하야 이를배달에 지장이업게할것입니다

五、集配人素質向上問題 아직까지는 집배인들이 사회를 위하야 국가를 위하야서의 중대한사명을 깨닷지못하고 잇슴니다 이제부터는 소양과성질을보아서 채용할뿐아니라 무단이훈련을가하야 소질을 향상식이려합니다 귀하도서로서로 련락을취하야 만전을 긔하도록 협력하여주시기바람니다 운운

金浦郡下에火災 二戶全、半燒

【金浦】지난십일 오후두시삼십분경에 김포군군내면 사우리(紗寓里)백사십일번지 홍현천(洪顯天)의집에서 불이일어나자 읍내김포소방조원이 출동하야 진화에 노력하엿스나 동가는 전소하고 린접한 리의백(李義伯)의집은 반소하엿는데 그동리는 전수가부족하야 일시는위험상태에 빠진것을 소방조원의 필사적노력으로 오후네시경에 겨우진화하엿는데 그원인은 이웃집아이가 석냥을가지고 집가리근처에서 작난하다가 그와가티 축화한것인데 손해액은 약이백여원가량이라한다

飮料水不足으로 二千坑夫大恐慌

江西炭坑의水饑饉

【江西】강서군 동진면룡정리무연탄광(東津面龍井里無煙炭坑)에서는 월여전부터 음료수가 고갈되어 광부이천여명은 갱구(坑口)속에서 나오는 물를 먹는다는데 그것조차도 부족되여 어더먹을수가 업서서 물을 구루마로 실어내여다가는 물표지를 가저오는 사람마다 한조롱식 가저간다는바 광부들은 닥처오는치운겨울에 물까지 업서서 곤난을 당한다고한다

興南商工會의 不祥事件再燃

【興南】창설즉후 이십여명의 대량탈퇴 회원을내인 흥남상공회역원간에 또무슨귀걸이 생기는지 지난사일 역원회석상에서 조선인 리사 김상수씨가 정식으로 사면하엿고 금융부장 박덕용씨도 그책임을 거절하는등 매우 상스럽지 못한징조가 농후하여 일반회원의 지지까지도 의문이되다고한다

西湖津公立普校 縮級內示를撤回

學父兄會活動의奏効

【興南】서호진공보교에서는 져간학부군당국의 학급축소내시를 밧자 이에반긔를 들고 오히려 학급보성을 피한다함과 이를위하여 지난칠일 관계당국에 진정한바이섯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학부형회의 조리잇는 활동과 구체적계획을 들은 군、도당국에서는 전긔학급축소 내시를 철회하는동시에 학부형회의 결의에 오히려 찬의를 표하며 이곳에서도 무난이 십이학급의 완성을 보게되엿다한다

咸安署瀆職事件 五名은畢竟有罪決定

釜山地方法院公判廻附

【馬山】근래에 보기드문 전률적내용을가진 함안서(咸安署)독직사건의 관계자 전사법주임 김종기(金鍾基)、배규환(裵圭煥)、리현숙(李鉉淑)등오명은 그동안 마산법원예심에서 심리를 진행중이던바 지난 구일에 예심이종결되여 피고전부가 유죄로 결정되여 부산지방법원공판에 회부되엿는데 김종기는 독직수리(收賄)그외피고사명은 증뢰(贈賄)죄명이라한다

平原郡下에 百日咳猖獗

【平壤】평남평원군서해면원흥리(平原郡西海面元興里)에는 요사이 일긔불순한 관계로 악성의 감긔와 어린아이의 강적인 백일해(百日咳)가 창궐하여 수십호 한동리에 백일해에 감염되지안흔 아이가업스며 벌서 사망한아이도 수명을 내여 귀여운 어린이들을 가진、각가정에서는 전전긍긍하여 수미를 펴지못하고잇스며 면당국자로하여금 하로밧비 치료와 예방에 관한 알선이잇기를 바란다고한다

扶餘支局後援 懸賞擲柶大會

【扶餘】부여군림천시장(林川市場)에서 림천음내림선양복양화점주최와 본보부여지국 후원으로 오는 이십오일부터 신조척상적 사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가튼 상품을 주기로하엿다고한다

一等一人 黃牛一頭
二等二人 自轉車一臺
三等三人 錦山一木
四等四人 藥 四本
五等若干人 未 定
六等若干人 未 定

地方人事

◀稻根誠氏(潭陽稅務署稅務課長)新任人事次本報潭陽支局來訪
◀金正彦氏(前潭陽稅務署稅務課長)全北乃城稅務署長赴任人事次本報潭陽支局來訪
◀中西重雄氏(府北水利組合理事)新任人事次本報潭陽支局來訪
◀山邊斧松氏(前府北水利組合理事)金海大渚水利組合理事轉任人事次本報潭陽支局來訪
◀曹圭喆氏(昌寧郡都泉面長)新任人事次本報密陽支局來訪
◀白南守氏(迎日郡浦山面長)新任人事次本報浦項支局來訪
◀鄭鎭庚氏(泗川産業組合理事)新任人事次本社泗川支局來訪

敎育施設篇 한地方 한問題

普校增築問題에 좀더熱과誠을

興南有志奮發을促進

【興南】破滅에서 再生으로 暗黑에서 光明으로 나아가고저함은 人間社會의 生存慾에서 當然한 發露인 同時에 누구나가 否認못할 事實일것입니다 東西와 古今을 莫論하고 國家의 興亡盛衰가 敎育으로부터 左右된다는것은 너머나 잘아는 事實이다 우리 朝鮮에도 一面一校의 普校完成을 爲하야 全力을 다하고잇슴은 무엇보다 깃거웁고 感謝하는바이다

그러나 所謂 南邑中에서도 興南가티 우리社會에 施設이 不足한곳은업다 우리의 唯一한 敎育機關인興南普校가 數三年을두고 無數한 難關을 헤치고 開校한지不過一年에 다시增築을 하지아니하면 안될것을 우리는 여기서스스로 부끄러움을 늣기게되다 도라보건대 普校期成會 當時에 우리들의 해온일이 엇지 그리 無能하엿섯고엇지그리적엇든고? 위좀더힘이잇고 좀더先見의的이 엇섯던고? 三年을두고 運動하여 지은집을 一年이못되여 增築을 하지아느면 아니될 運命이니 勿論그時가利를 得치 못하엿고 그러므로 活動이 敏活치 못함이엿슬것이나 如何間小見이 엿든것만는 事實이다 最初普校를 期成하엿슬적에 興南邑一圓에 學齡兒童이 千餘名이엿섯다 그러타면 엇더케 四學級 四學年으로 이兒童들을 收用할수 잇섯슬것인가 그리고좀더 大局的으로 現下우리네의初等敎育이 四年制普校로 充足할수 잇섯스랴? 엇더튼 筆者는 여기저 興南普校에 急迫한 增築問題에對하야 先覺諸賢이 좀더先見의的이 잇섯드면하는 後悔를 禁치못하는것마는 事實이다 이제前事를 니저버리고 다시興南普校에 增築을爲함에 社會一般에 바람이만으매 有志諸彦에게 企待함이 크다는것도事實이다 勿論그中에는 힘에넘치는 同情을던지신분도잇기야 하지마는 아직도 우리에게熱誠이 不足함을 늣기지안흘수업다 우리들이 當하고잇는 現實을 구버볼때 좀더自奮하야 저들敎授會役員들의 活動을 有利케展開시켜 所期의目的을 貫徹케 하기를 興南有志들에게 再三付託한다 (興南支局一記者)

甕津의當面問題 公普校增築急務

簡易校增設도要望

【甕津】甕津公普校는 邑所在地에 잇느니만큼 學童이 現在五百餘에 達한다 그러나 每年新學期를 當하면 二百餘名의 入學志願者가 殺到하나 겨우 그의 三分의一인 六七十名밧게는 더收容치 못한다고한다 그와가티 더收容치못하는 最大의原因은 敎室이 狹한까닭이라한다 그리하야 年前에 校舍增築後援會를 組織하고 寄附金募集에活動한 事實에 對하야는 委員諸氏의 功勞를 謝하거니와 增築費豫算이 五千圓인데 아즉도그豫定額에 太半不足이라하나 이것은 實로유감이다 學父兄諸氏는 勿論어려니와 地方有志諸賢은 우리女子의 敎育을 爲하야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 만흔聲援을하야 하루밧비 甕津公普校增築의 實現을 보게하여 單한두사람이라도 더배올긔회를주는것이 諸位의 할바義務가아닐가한다 그리고 ㄸ한 年來로懸案中에잇는 東南、交井、經津의三面에 公普校의 學校延長問題는 單ㅡ問題의 하나이다 그럼으로 이方面에 좀더留意하야 目的達成에 邁進할것은 勿論이려니와 그를 指導監督하는 當局으로서도 特히한 考慮가잇서 하로속히 實現하기를 務望하는바이다

簡易學校는 現在 萬珍、登山、吕陰等의 三個校가 잇슬뿐이니 이엇지 우리의 滿足할비랴 向學熱이 高調되는 오늘날에 잇서서 一面二校의 實施가 그리 容易치 안은 以上 우리는 簡易校라도 增設을하야 未就學兒童에게 배울機會를 주기를 懇望하는것이다

第二世國民의 敎育如何에달렷다는것은 世人의共知하는바 事實이다 그럼으로우리社會에 敎育機關의 不充은 곳우리社會의 盛衰를左右한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이러한 意味下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들는 敎育에對한 徹底한覺悟를 가저야 되겟다는것을 絶叫하야 마지안는바이다 (甕津支局記者)

謹賀新年

咸平

咸平郡廳員一同

咸平郡面職員一同

羅山金融組合職員一同
咸平 戶所勝人

咸平郡學校職員一同

慶星醫院 閔泳星
濟生醫院 李化善
廣濟醫院 朴辰永
韓橋醫院 韓泰洙
羅山醫院 崔昌東
泰濟醫院 洪馬泰

咸平 秋吉豐
咸平第一藥房 李東玉
咸平文房 李洪烈

二養社 孫佛農場員一同

咸平 李載爀

咸平 牟盛祺
咸平酒浦 金東明

鶴橋驛前 時村政車

咸平司法書士聯合會

濟州

濟州島公立學校長一同

濟州島産燒酒販賣株式會社

康性益

城山面事務所 職員一同 面長 金鶴寶

濟州島城山浦 各種雜貨 新炭作業 漁船具 金物 金允商會 主 金允鎬 電略カネキ又ハ(キ) 振替釜山七四八五番

濟州島城山港 城山面事務 集城山 燒酎元賣 裕進酒造工場 主 韓行力

濟州島城山浦 罐詰製造業 玄承五

全南濟州島朝天面咸德里 濟州燒酎製造發賣元 瀛洲酒造組合 電略(カン)又ハ(한)

濟州島美善里 綿布雜貨 官鹽王子 海産物産業 燒酒製造 宋權殷

濟州島月汀里 中央普通學校 敎員 左壽六 姜允鎬 金景鳳 姜季敦

安德面事務所 面長 金奉奎 高君七 梁君涉 金泰根 梁酉甲 高安禮

濟州島中文里 中文面事務所 面長 金箕俊

濟州島高山里 三省醫院 院長 左任瑢

濟州島禾北里 精米、精麥、精粟、製粉 東池原精米所 金培珪

濟州島西歸浦 三共酒造組合 姜文玉 高載翯

濟州島西歸浦 西歸濁酒釀造場 主 趙喆允

濟州島西歸浦 貿易商 十一商會 李元玉 李道伯

濟州島舊右翰林港 藥酒濁酒製造販賣 翰林濁酒工場 金大元

濟州島翰林港 海陸物産貿易 島産燒酒一手販賣 舊右商事組合 理事 梁斗鎬

濟州島翰林港 翰林面事務所 面長 金祀宇

濟州島涯月里 食料罐詰製造業 貝釦製造 李定律

濟州島翰林港 太田罐詰分工場

濟州島翰林浦 生絲製造 海陸物産貿易 綿布雜貨 金兄弟商店

濟州邑內 崔允淳 萩原駒藏

濟州島海女漁業組合

濟州邑內 濟州電氣株式會社

濟州邑內 三井物産 日本石油 總代理店 濟州護謨販賣組合

濟州邑內 日本生命 尼崎生命 大阪火災 フォード 自動車 總代理店 日本石油特約店 耽羅商會 支配人 崔正頵

濟州島醫生會 會長 邊太祐

濟州島濟州邑禾北里學校通 文房具 諸雜貨 愼洙勳商店 電略(シン)

濟州島禾北里 禾北精米所 金光厚 鄭斗炳

濟州邑事務所

濟州邑內 田中勇

濟州邑內 濟州商事株式會社

濟州邑內本町 甲子屋帽子店

濟州邑內元町 古賀寫眞館

朝鮮汽船 神戶大辰海運 濟州代理店 主 金泰玟

濟州邑內 道評議員 金瀛熙

濟州邑內本町 洋品雜貨 三和商店 電一二四

濟州邑內 湖南酒造場 玄景昊

濟州邑內 濟州稅關出張所 齋藤俊夫

濟州邑內元町 和洋菓子 食料品各種パン 金澤萬 屋

濟州島邑內元町 濟城帽子製造所 金圭珓

濟州邑內 齋藤自轉車店 康源弼

濟州邑內元町 貿易商 朴宗實商店 電話二十八番

濟州邑內 明信堂時計舖 主 金甲培

濟州邑內一徒里 濟州燒酎販賣所

濟州邑內元町 金成洋服店 金成熙

濟州邑內 濟州産業組合 三矢久彌

濟州島朝天里 朝天面事務所 面長 韓保權

濟州島城山浦 玄二吉

濟州島細花里 太昌商店 康修七 許共吉

濟州島金寧里 金寧金融組合 理事 具一玄 外職員一同

濟州島金寧港 尼崎汽船 晃陽汽船 荷客取扱 姜英効回漕部 振替釜山五三七五番

濟州島表善里 表善面事務所

濟州島表善港 各種布木 日用雜貨 燒酎販賣 陶器鐵物 鄭中立商店 電話(十九)又ハ(정)

濟州島月汀里 舊左面漁業組合

濟州島中文里 運送 鷄卵移出業 島産燒酎一手販賣 尹性鍾

濟州島細花里 夫子休

濟州道下道里 下道普通學校 職員一同

濟州島金寧里 金[illegible]書堂

濟州島[illegible]里 保生醫院 院長 玄才卓

濟州島法還里 醫生 玄至濟

濟州島泰興里 李元養蜂場 李元[illegible]

朝鮮濟州島[illegible] 綿布雜貨 進[illegible]

濟州島[illegible]

濟州島慕瑟浦 慕瑟浦金融組合

濟州島慕瑟浦 三山醫院 文達[illegible]

濟州島涯月里 月露燒酎工場 主 金文奎

全南濟州島翰林港 翰林漁業組合 振替京城一三九七六番

濟州島翰林 明月燒酎組合

濟州島翰林港 公醫 松井龍起

濟州島翰林 雜貨布木商 金兄弟商會 電略(キン)又ハ(キンケ)

濟州島翰林 運送業 海陸物産貿易 高丁廈回漕部

濟州島西歸浦 西歸面事務所 面長 金貞益

濟州島西歸浦 果物生産 材木販賣 濟州農園 振替京城一三○五○番 電略(サイカ)又ハ(カ)

濟州島西歸浦 西鄕武十商店

濟州島西歸浦 眞品陳皮共同移出組合 主 鄭嚴璂 元琪

濟州島西歸浦 藥草栽培業 金文玉

濟州島西歸浦 貿易商 朝日商會 姜完宅

濟州島高山里 高山書堂 職員一同

大靜面事務所 面長 禹寧夏 申在京

濟州島城山浦 朝鮮郵船 朝鮮汽船 荷客運送業 林基星

濟州島涯月里 涯月郵便所 所長 吳奎三

濟州島涯月里 涯月金融組合 理事 金在鏞

濟州島郭支里 齊省醫院 姜鳳熙

濟州島翰林 翰林金融組合 理事 李丁鎬

濟州島西歸浦 朴容駿醫院